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개키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개키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개키다

완성된 이름

개키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가혀다	-	-	-	-	-
개키다	-	-	-	-	-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 수록 용례

11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개키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개키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개키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가혀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개키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가혀- 문헌 수록 표기	—	—	●→	●→	—	—
기키- 문헌 수록 표기	—	—	—	—	●→	—
개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가혀다

17세기18세기

- 개키다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가혀-, 기키-, 개키-

↳ 개키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개키다’의 옛말인 ‘가혀다’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가혀-’는 이후 ‘*개혀-’로 변하고 ‘*개켜-’를 거쳐 ‘개키-’로 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개켜-’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개켜’에서 어간을 ‘개키-’로 잘못 분석함에 따라 ‘개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개키-’는 19세기에 ‘기키-’의 형태로 나타났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기키-’는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ㅏ’도 ‘ㅑ’로 변하면서 그 영향으로 ‘개’와 ‘기’도 섞여 표기된 것이다. 20세기에 ‘개키-’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개키다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가혀-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가혀-

출처 1690 역어유해 상:47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運衣裳 옷 다리다 疊衣裳 옷 가혀다 疊藏了 옷 가혀 곱초다 衣服臥了 옷 구기다.

現代어 풀이

옷 다리다, 옷 개키다, 옷 개켜 감추다(저장하다), 옷 구기다.

18세기 가혀-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가혀-

출처 1748 동문유해 상:57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疊起 접다 又 가혀다.

現代어 풀이

접다 (또는) 개키다.

출처 1778 방언유석 2:24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疊衣 옷 가혀다.

現代어 풀이

옷 개키다.

출처 1778 방언유석 2:24ㄱ

용례 04

66 문헌 용례

疊衣 옷 가혀다 衣寬 옷 널으다.

現代어 풀이

옷 개키다, 옷 널다.

출처 18세기 후반 한청문감 11:30ㄴ

용례 05

66 문헌 용례

捲揲起 가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기키-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기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751

용례 06

66 문헌 용례

기키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개키-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개키-

출처 1922 동아일보 1월 9일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초저녁에 연연이가 개켜 노은 외투를 집어드니 무엇인지 달그락하고 의자 발에 부딪쳐 가지
고 다시 방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3 동아일보 4월20일 4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부인의 침상은 어적게 아침에 개켜 노은 채로 그대로 잇섰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방 한 구식에 안저서 어린애 기적이를 개키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수넘이는 물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한참 잇다 들어온 麗華는 영채 도는 큼직한 눈에 우슴을 먹음고 C의 손 우에 차곡차곡 얹전히 개킨 하야케 싸러 빨닌 수건을 쥐여 주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한편 구석에는 개켜 노은 이부자리가 서너 벌쌘 싸여서 잇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개키다의 보충 설명

‘가혀다’는 ‘*개혀다’와 ‘*개켜다’를 거쳐 ‘개키다’로 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혀-’가 18세기에 모음 ‘·, ㅏ, ㅑ’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ㅣ, ㅞ, ㅟ’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 ‘*개혀다’로 변한다. ‘*개혀다’가 ‘*개켜다’로 변하는 것은 ‘혀다/혀다’가 ‘켜다’가 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개켜다’가 ‘개키다’가 나오게 된 것과 같은 양상을 위로 향하여 끌어 올리다를 뜻하는 ‘치키다’가 옛말 ‘치혀다’에서 나온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돌이켜다’와 방언형 ‘돌이키다’의 관계도 참고가 된다. ##한편 문헌에서 ‘개혀’, ‘기혀’가 나타나지만 ‘가혀다’가 변화한 ‘*개혀다’의 활용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1] 니불을 개혀 놓피 돌고<1736 여사서언해 03:51ㄴ> [현대어 역] 이불을 개어 높이 달고 [예2] 낡은 목화나 신이나 신고 무이 굴너 뵈다가 주로 퍼 가며 고쳐 기혀 뵈다가 반만 마르거든<1869 규합총서 전:23ㄴ> [현대어 역] 낡은 목화(木靴)나 신이나 신고 많이 굴러 뵈다가 자주 퍼 가며 고쳐 개어 뵈다가 반 정도 마르면이 ‘개혀’, ‘기혀’는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를 뜻하는 ‘개다’의 옛말인 ‘가히다’에서 변한 ‘개히다’의 활용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키다’와 ‘개다’가 활용형이 겹치던 시기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개혀’, ‘기혀’는 ‘*개혀-’, ‘*기혀-’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

개키다 관련 낱말

개다

개키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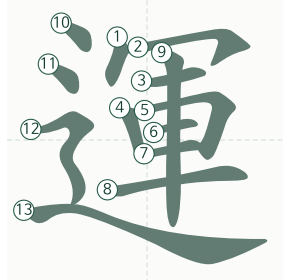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개키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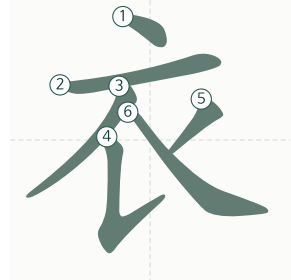
뜻·음 옮길 운
총 13획 · 부수 辶



hanja.wordrow.kr/한자/運/

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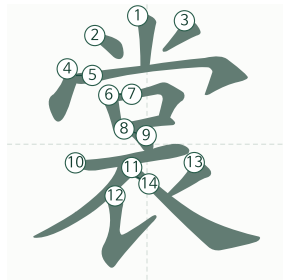
뜻·음 옷 의
총 6획 · 부수 衣



hanja.wordrow.kr/한자/衣/

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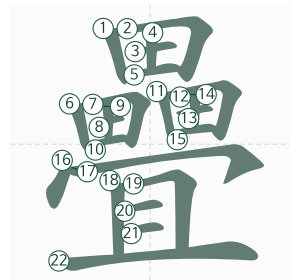
뜻·음 치마 상
총 14획 · 부수 衣



hanja.wordrow.kr/한자/裳/

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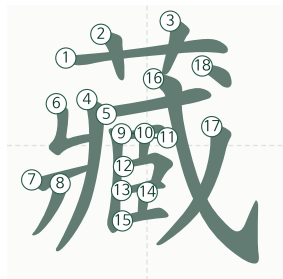
뜻·음 거듭 첩
총 22획 · 부수 田



hanja.wordrow.kr/한자/疊/

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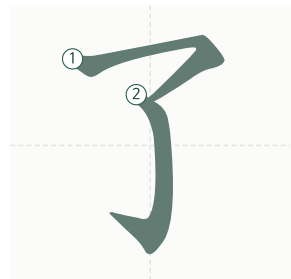
뜻·음 감출 장
총 18획 · 부수 艸



hanja.wordrow.kr/한자/藏/

了

뜻·음 마칠 료
총 2획 · 부수 亅



hanja.wordrow.kr/한자/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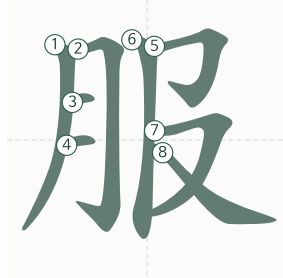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服

뜻·음 옷 복

총 8획 · 부수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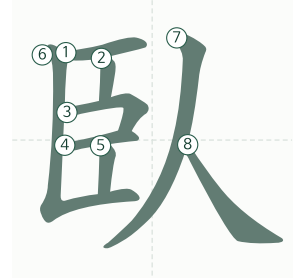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服/

臥

뜻·음 누울 와

총 8획 · 부수 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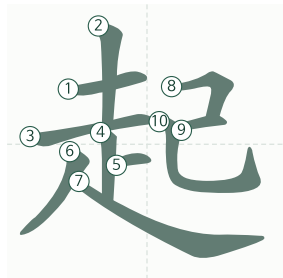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臥/

起

뜻·음 일어날 기

총 10획 · 부수 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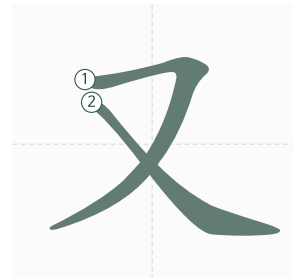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起/

又

뜻·음 또 우

총 2획 · 부수 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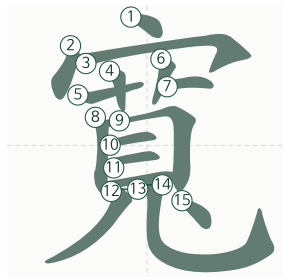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又/

寬

뜻·음 너그러운 관

총 15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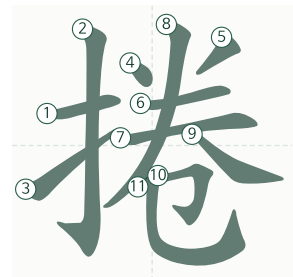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寬/

捲

뜻·음 거둘·말 권

총 11획 · 부수 手



hanja.wordrow.kr/한자/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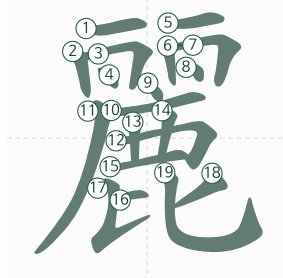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麗

뜻·음 고울려

총 19획 · 부수 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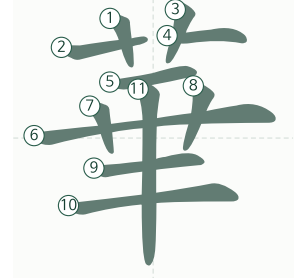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麗/

華

뜻·음 빛날 화

총 11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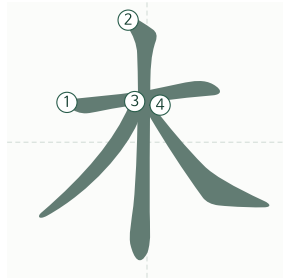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華/

木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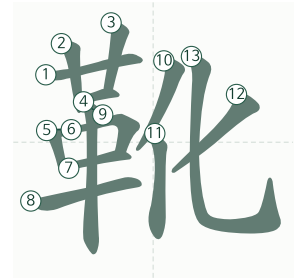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木/

靴

뜻·음 신[履, 鞋] 화

총 13획 · 부수 革



hanja.wordrow.kr/한자/靴/